

함평, 취약계층 급식 지원체계 강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함평군은 “6월부터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동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해왔다.

군은 6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 ▲급식소 위생·안전 관리 강화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식생활 교육 확대 ▲현장 중심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통합 운영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노길상 기자

장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적 마무리

민·관·경·소방 협력체계 점검... 대응능력 향상

장흥군은 지난달 29일 실시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경·소방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훈련은 장흥군의 과거 집중호우 피해 사례를 반영해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시설물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장흥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

된 토론훈련과 대한민국체육인재발원에서 진행된 현장훈련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며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고도화된 실전형 훈련으로 펼쳐졌다.

훈련에는 장흥군을 비롯해 장흥소방서, 장흥경찰서, 육군 제8539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주민대피훈련을 병행 실시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조·소방차량과 구급차,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재난 발생부터 구조·구호,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장성 삼계면 민원실에 ‘포토존’ 조성 눈길

장성군 삼계면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에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포토존’은 조화 장식과 응원 문구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삼계면이 ‘전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별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으로 조성해 의미를 더했다.

임영애 삼계면장은 “출생이나 전입, 혼인 신고 등 특별한 날을 사진으로 남길 때 활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따뜻한 행정 공간을 넘어



면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나주, 식품안심업소 확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맞춤형 사전컨설팅 무료 지원... 외식업소 위생 경쟁력 강화

위생용품 지원·용자 우대 등 혜택 확대...영업주 참여 독려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도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식품안심업소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업소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위생 등급제가 ‘식품안심업소(별 5개)’ 체계로 통합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이 위생 수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일부 업소가 신청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점을 고려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은 전문업체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 기준에 따른 보완 사항과 준비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지원을 비롯해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우선 지원, 출입·검사 3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통해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해 ‘2026 나주방문의 해’ 500만 관광객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주=최준호 기자

영광, CCTV 확대... 범죄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1억5000만원 투입... 후보지 17곳 설치 검토



영광군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를 통해 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경찰서에서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추진 방안과 설치 대상지 선정 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설치 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45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영광군과 영광경찰서는 범죄 취약지역과 112 신고 다발 지역 등 범죄 예방이 필요한 17곳을 설치 후보지로 선정했다.

CCTV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 점검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설치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중민 기자

담양, 관내 사업체 대상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담양군은 국가데이터터치와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고용과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5,000여 개의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컴퓨터·모바일·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선 진행되며,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지역 산업 구조와 변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며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이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담양=장진성 기자

화순, 집중호우 대비 이동식 대형 양수기 도입 가동 시연

분당 최대 4,500ℓ 배수 성능으로 침수 피해 최소화 기대

화순군은 지난달 27일 균형 앞 인공폭포 광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이동식 대형 양수기 가동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기후변화로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동성과 배수 효율을 높인 이동식 대형 양수기 1대를 신규 도입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범 화순 부군수가 비롯해 화순경찰서, 화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제

7391부대 관계자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총 22명이 참석해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이동식 대형 양수기의 실제 가동 성능을 확인했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식 대형 양수기는 40마력 토목용 디젤 엔진을 탑재해 분당 최대 4,500리터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특히 차량 이동이 가능해 침수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수 작업이 가능해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집중호우 예보 시 침수 우려 지역에 사전 배치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범 부군수는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난 대응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방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청정 함평에서 자연과 호흡하며 자란

함평천지 한우

고기의 육즙이 풍부해 감칠맛이 나며 부드럽고 담백한 씹는 맛이 일품으로 최고급육으로 평가 받고 있다